

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추석 명절의 사회학적 풍경

추석 연휴를 지내고 나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라는 인사를 하게 된다.

"네, 뭐, 잘 보냈습니다!"라고 답하지만 얼굴 표정은 개운하지가 않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추석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수확하는 즐거운 축제의 날이다.

각 가정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절의 가족 모임은 3세대 또는 4세대가 만나는 자리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아들과 딸 세대, 손자와 손녀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속에는 한국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겪은 사회변동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난다.

을 살아 온 여러 세대가 모였을 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먼저 같은 말을 쓰지만 서로 간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 거리를 두거나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세대 간의 차이에도 남녀 간의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머느리를 비롯한 여성들에게 추석은 명절이 아니라 '고행'의 날이다. 세대와 남녀 차이만이 아니라 계층 간의 차이도 있다.

그러서 때로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기쁨과 질투, 무시와 멸시의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아가는 모습이 달라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다. 일단 자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서먹서 먹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치게 된다.

그런 추석날 가족 모임에서 한국사회의 풍경을 읽을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그런 변화의 와중에서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었으며 지금은 '금수저'와 '흙수저'가 거의 결정된 상태다.

한 가족 안에서 조부모-부모-자식 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현격하게 달라진 경우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나온 아버지가 도시로 나가 사업에 성공했고, 아들은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의 간부 사원이고, 손자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대학 교수인 어떤 가족의 경우, 세대 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엄청난 거 큰 차이가 생긴다.

'생존'이 삶의 가장 근원적인 목표였던 구세대가 '자아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진 신세대의 삶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절박했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나 '취향' 같은 말들은 공허한 사치로 들릴 수 있다.

이제 추석은 지나갔다. 몇 달 지나면 설 연휴가 찾아올 것이다. 설 연휴에는 다음과 같이 가족을 존중하며 대화와 소통이 증진되는 이야기 마당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사회학자·작가)

社說

수백억 원대 분양사기 배후 철저히 가려내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 오피스텔 중복 분양사기 사건은 서민이 대다수 피해자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공분을 불러일으킨다.

한데 문제의 오피스텔 건축 과정에서 지역 재력가와 두목급 조폭이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급전 대부 조건으로 규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갠탈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시행사는 더욱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의 한 재력가는 시행사 대표 측에 모두 20억 원을 빌려주고 46억 원 상당을 받아갔다고 한다.

고려대부업자로 수사망이 좁혀지자 조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될 당시 한 폭력 조직 간부급은 3억 원 가량 금액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그들의 꿈이 깨지게 됐으니 안타까움과 함께 지탄이 빚발친 것은 당연하다.

일단 이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한 고리대금 사기 같지만 관련부위의 위세를 이용하거나 조직폭력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위기...30년 이내 사라질 시·군 많다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17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의 84개 기초자치단체가 적어도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부 소속 황영철 의원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들어 2014년 79곳에서 지난해 80곳, 올해는 7월 기준으로 84곳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경북이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곳, 경남은 18곳 중 11곳이 각각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도는 자체 소멸 위험지수가 지난 7월 기준으로 0.52를 기록한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 소멸 단계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등 단편적인 처방이 아닌 20~39세 가임기 여성을 지방에 정착시켜 출산율을 높이는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커피한잔

우리 시대 기풍이 없다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나 신라의 화랑도를 주문하자는 게 아니다. 더 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공감, 그 공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목표, 그 목표를 향한 공동 노력은 우리가 '국가'라는 것을 이루고 사는 이상 꼭 필요하다.

레미제라블의 무대인 19세기 초 프랑스. 이미 혁명으로 왕의 목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근대 러시아에도 비참한 농노제를 철폐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수많은 지식인들, 인텔리겐차로 불리는 문인 엘리트 사상이 대학생들이 이 대열에 동참했다.

불을 지른 건 소설 한 권이었다. 체르니셰프스키라는 작가가 투옥 중에 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은 비탄에만 빠져 있던 인텔리들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대공황 이후 미국사회에도 강력한 기풍이 널리 퍼졌다. 지긋지긋한 실업과 디플레에 시달렸던 미국인들은 다행히 멋진 지도자를 거뒀다.

때마침 터진 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입대를 자원했다. 미합중국은 이때부터 비로소 스스로를 '위대한 나라'라고 부를 수 있었다.

기풍이 있는 나라, 신념을 가진 사회는 건강하다. 서로 믿으며 낙오자를 자발적으로 돌본다. 끔찍한 범죄나 자살이 줄고 유머가 넘친다. 누구나 내일을 낙관하는 것이다.

을 알린 88 올림픽 시기, '금 모으기' 대열로 상징되는 외환위기 극복 시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세마를 운동은 유신독재의 그늘이, 88올림픽은 5, 6공 독재의 그늘이, 외환위기 극복은 신자유주의 악용강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이대로 안 된다. 행여나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조선 청년에게 고한' 식으로 젊은이들에게 미루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다리거나 휴게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크 설치, 휠체어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 개선, 아이들과 선생님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휴의 레이아웃 재배치, 외벽 단열재 보강, 기존 창호 철거 후 단열 창호로 교체, 불박이장, 씽크대, 위생 기구 교체 등을 포함한다.

기고

장애인은 없다, 단지 장애물만 있을 뿐



이순미 건축사·(사)장애없는 세상 만들기 상임이사

애물이 없다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굳이 장애인으로 구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공간에서 장애물을 없애는 일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왔던 인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일이기도 하다. 장애물을 설치하고, 신체 장애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설치하면서 신체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장애물을 두지 않으므로써 신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처럼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명 '100세 유병 시대'가 된 지금은 누구도 장애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인 지금, 누구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다리거나 휴게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크 설치, 휠체어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 개선, 아이들과 선생님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휴의 레이아웃 재배치, 외벽 단열재 보강, 기존 창호 철거 후 단열 창호로 교체, 불박이장, 씽크대, 위생 기구 교체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예비 건축가로서의 대학생들은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 진행되는 설계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건축가의 사명감을 몸소 느끼게 되었으며, 사업이 완성되는 과정과 함께 자신도 한층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건설사와 건설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함께 나누으로써 기존의 장애인을 차별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는 뜻깊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예산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한 행정관서의 중요성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글 잘 쓰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이 송나라 문인 구양수의 '3다(多)다. 많이 듣고(多聽), 많이 읽고(多讀), 많이 생각하라(多商量)는 것이다. 글 쓰기 전 과정까지를 포함한 것이니 당연한 말이다.

이와 같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예비 건축가로서의 대학생들은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 진행되는 설계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건축가의 사명감을 몸소 느끼게 되었으며, 사업이 완성되는 과정과 함께 자신도 한층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건설사와 건설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함께 나누으로써 기존의 장애인을 차별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는 뜻깊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예산과 행정 서비스를 지원한 행정관서의 중요성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Advertisement for 'Danmun's Literature' (단문의 미학) featuring a 'No Equal Drum' (無等鼓) logo. Text describes the benefits of writing and the course's focus on practical skills and literary analysis.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services.